

일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강현경*

¹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effect of some propertie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Hyun-Kyung Kang^{1*}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와 상관관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1월 동안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178명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1.0)를 이용하고, 유의수준 $p < 0.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업성취수준이나 봉사활동 참여도를 통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수준, 봉사활동 참여도, 연령, 종교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있는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volunteer activ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correlation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se. After explaining the aims of the study to participants and receiving their consent during January 2015,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with 178 responses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olunteer activity properties were found to affect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mproved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In addition to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volunteer participation, age, religious, etc. It is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that provide students with academic motivation and natur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would be helpful, as would increasing group activitie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Keywords : Dental hygiene, 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Volunteer activities

1. 서론

대학은 학문과 진실을 탐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진
인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대학이 내세우는 인재상에 부

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문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이
를 통해 학생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아서 개발하고 그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찾아내고 사회에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

*Corresponding Author : Hyun-Kyung Kang(Silla Univ.)

Tel: +82-51-999-5249 email: icando@silla.ac.kr

Received September 10, 2015

Revised October 5,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는데 봉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봉사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 긍정적인 교육효과로써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1].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에서는 정규 강좌로 지정하거나 졸업 필수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시간,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가지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봉사자 자신에게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자긍심 혹은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복지를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2]. 특히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인문사회학 분야의 교과목을 통해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치위생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봉사자로서 학문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양이 필요한 데 그 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긍정적인 가치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되고 인간의 생애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가치를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한다[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애정이 있고 에너지가 많으며 순발력이 있다[3].

자기효능감은 어떤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6]. 그리고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외적 및 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극복하는 정신력이라 할 수 있다[7].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8]. 회복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고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9].

치위생학의 교육은 전문성이 있는 치과위생사의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치과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치과 임상의 대부분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다. 학업 위주의 대학생활보다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봉사활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인간존중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은 학과 전공에서 학습한 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이며,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을 때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4].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연구들을 살펴보면, 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2,10],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직업 및 진로탐구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11,12]. 회복탄력성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3,14],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14]등이 있다.

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치위생 분야에서 극히 드물다.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특성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단면조사이다. 2015년 1월에 부산에 거주하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성실한 답변 2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결과분석이 가능한 178명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Hsieh 등[15]이 제시한 방법으로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Effect Size=0.5, α probability=0.05, Power=0.95의 조건에서 산출한 표본 크기는 176명이므로 부산지역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 178명은 본 연구 대상의 표본크기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2 연구도구

2.2.1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특성은 신미아[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9 문항으로 봉사시간, 전공 관련성, 봉사형태, 봉사 장소, 봉사시간 활용, 봉사활동 참여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필요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2.2 자기효능감

Bandura[6]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s; SES)[16]를 홍혜영[1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이다. 점수화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아주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번안 당시의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α 는 0.86,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α 는 0.7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합쳐 자기효능감으로 분석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는 0.891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Coopersmith[18]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연구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로써 모든 연령층이 사용 가능하고, 4가지 하위영역인 자기비하(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점수화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당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는 0.796이었다.

2.2.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한국실정에 맞게 소개한 김주환[7]의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화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덕순과 문영희[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32이었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통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표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Self-esteem	25	0.891
Self-efficacy	23	0.796
Resilience	23	0.932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1.0)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Scheffe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단계선택을 실시하였고,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였으며,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를 통해 오차의 정규분포를 검정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 159명으로 89.3%였으며 남성 19명 10.7%였다. 평균연령은 22.23세였고, 학력은 4년제 대학교 학생이 155명 87.1%였다. 자신의 현재의 학업성취 수준은 중정도가 166명 65.2%였고, 가정 경제의 수준은 중정도가 165명 92.7%였으며 종교유무에서 없다가 130명 73.0%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9	10.7
	Female	159	89.3
Age	>=22	112	62.9
	<22	66	37.1
Academic Level	3-year	23	12.9
	4-year	155	87.1
Academic Grades	High	48	27.0
	Medium	116	65.2
	Low	14	7.9
Family Socioeconomic Status	High	4	2.2
	Medium	165	92.7
	Low	9	5.1
Religious Status	No	130	73.0
	Yes	48	27.0
All		178	100.0

3.2 연구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

대학 재학 시 봉사시간은 100시간 미만인 경우 132명 74.2%로 나타났으며,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우 146명 85.0%로 나타났다. 봉사의 형태는 학교에 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105명 59.0%, 봉사 장소는 주로 요양병원 159

명 36.5%, 노인시설 57명 32.0%였으며, 봉사시간활용은 주로 주중 93명 52.2%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도는 적극적인 경우가 125명 70.2%, 봉사활동 만족도는 만족한다 104명 58.4%, 봉사활동 필요도는 필요하다 113명 63.4%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Volunteer activity properties

		N	%
Total Dur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100	46	25.8
	<100	132	74.2
Relatedness to Major	No	32	18.0
	Yes	146	82.0
Volunteer Behavior	Participation with Friends	38	21.3
	Individual Participation	22	12.4
	Participation as Part of Group Activities	13	7.3
	Volunteer Activities with School	105	59.0
Loc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Orphanage	6	3.4
	Elderly Facilities	57	32.0
	Disabled Facilities	24	13.5
	Hospital	65	36.5
	Local Children's Center	26	14.6
Time of Volunteer Activities	Weedays	93	52.2
	Weekends	25	14.0
	School Holidays	60	33.7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Passive	6	30.4
	Normal	47	26.4
	Active	125	70.2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Dissatisfied	6	3.4
	Normal	68	38.2
	Satisfied	104	58.4
Necessity of Volunteer Activities	Unnecessary	15	8.4
	Normal	50	28.1
	Necessary	113	63.4
All		178	10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3.604, p<.001$), 회복탄력성도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03, p<.05$). 학력은 3년제 대학교에 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기효능감 ($t=-2.075, p<.05$), 자아존중감($t=-2.036, p<.05$), 회복탄력성($t=-2.851, p<.01$)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에서는 자기효능감($F=4.691, p<.05$), 자아존중감

Table 4.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Self-efficacy		Self-esteem		Resilience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ender	Male	19	82.16±9.17	3.604***	88.95±12.42	1.757	194.05±26.31	2.503*
	Female	159	74.47±8.75		83.77±12.12		180.58±21.65	
Age	≥22	112	76.19±9.78	1.733	85.59±11.70	1.817	182.72±22.71	.540
	<22	66	73.76±7.60		82.17±12.85		180.83±22.25	
Academic Level	3-year	23	71.65±8.12	-2.075*	79.52±13.09	-2.036*	170.22±21.14	-2.851**
	4-year	155	75.83±9.12		85.03±11.96		183.77±22.22	
Academic Grades	High	48	78.08±7.96a	4.691*	87.79±13.24a	4.047*	186.81±20.54a	2.751
	Medium	116	74.72±9.49ab		83.63±11.80ab		181.32±23.04ab	
	Low	14	70.43±6.35b		78.14±8.73b		171.43±21.46b	
Family Socioeconomic Status	High	4	76.75±8.73	1.292	91.50±6.66	.826	193.00±13.19	1.040
	Medium	165	75.00±8.78		84.05±12.04		181.35±22.51	
	Low	9	79.89±13.79		86.11±16.78		189.44±24.65	
Religious Status	No	130	74.50±8.59	1.915	83.14±11.35	2.145*	180.57±21.89	1.423
	Yes	48	77.42±10.12		87.52±13.94		185.96±23.85	

p<.05, **p<.01, ***p<.001,

a, b : Scheffe by ANOVA

(F=4.047, p<.05)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성적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 종교가 있을수록 자아존중감(t=2.145, p<.05)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역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종교가 있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봉사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00시간 미만에 비해 100시간 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699, p<.01), 회복탄력성 역시 100시간 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192, p<.05). 봉사활동의 전공 관련성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t=2.080, p<.05).

3.4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

3.5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

Table 5.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according to volunteer activity properties

Spec.	N	Self-efficacy		Self-esteem		Resilience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Total Dur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 100	74	77.54±10.08	-1.972	88.43±12.16	-2.699**	188.22±22.93	-2.192*
	< 100	104	74.50±8.62		82.89±11.95		179.86±22.02	
Relatedness to Major	Yes	146	75.82±9.45	2.080*	84.67±12.09	.818	183.25±22.36	1.557
	No	32	72.84±6.78		82.72±12.85		176.44±22.64	
Volunteer Behavior	Participation with Friends	38	72.50±9.22	2.121	83.11±12.98	.611	178.45±21.91	.962
	Individual Participation	22	74.18±8.05		85.91±11.75		179.59±22.12	
	Participation as Part of Group Activities	13	74.54±7.39		81.08±9.35		177.54±20.04	
	Volunteer Activities with School	105	76.62±9.27		84.83±12.39		184.38±23.05	
Loc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Orphanage	6	72.17±4.45	.526	80.50±15.33	.564	177.67±15.63	.252
	Elderly Facilities	57	75.95±8.02		83.95±11.83		183.82±21.24	
	Disabled Facilities	24	76.83±10.01		84.38±14.89		179.00±26.86	
	Hospital	65	74.71±10.23		85.78±12.37		182.05±22.98	
	Local Children's Center	26	74.58±8.34		82.31±9.35		181.81±22.07	
Time of Volunteer Activities	Weedays	93	75.30±9.02	.323	83.26±11.98	.735	181.15±23.38	.369
	Weekends	25	74.04±8.66		85.60±10.49		180.44±20.07	
	School Holidays	60	75.78±9.46		85.43±13.25		184.03±22.26	

*p<.05, **p<.01, ***p<.001

Table 6.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according to volunteer activity properties

	1	2	3	4	5	6
1	1					
2	.486**	1				
3	.308**	.631**	1			
4	.257**	.182*	.229**	1		
5	.214**	.167*	.161*	.705**	1	
6	.241**	.194**	.221**	.712**	.782**	1

*p<.05, **p<.01, ***p<.001

1;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2;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3;Necessity of volunteer activities, 4;Self-efficacy, 5;Self-esteem, 6;Resilience

Table 7. Factors effect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resilience (N=178)

		B	SE	β	t	p
Self-efficacy	(Constant)	28.392	7.941		3.575	.000***
	Academic achievement	1.529	.344	.295	4.447	.000***
	Age	1.088	.333	.218	3.270	.001**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2.593	.778	.220	3.332	.001**
	Religious status	3.382	1.341	.166	2.523	.013*
	Volunteer behavior	.876	.355	.165	2.469	.015*
R ² =.266, Adj R ² =.245, F=12.495, p<.001						
Self-esteem	(Constant)	38.827	11.204		3.465	.001**
	Academic achievement	2.052	.483	.295	4.250	.000***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3.024	1.092	.191	2.770	.006**
	Religious status	4.616	1.883	.168	2.451	.015*
	Age	.949	.464	.141	2.046	.042*
R ² =.187, Adj R ² =.169, F=9.980, p<.001						
Resilience	(Constant)	129.722	9.657		13.432	.000***
	Academic achievement	2.643	.910	.206	2.904	.004**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6.222	2.037	.213	3.055	.003**
	Age	13.464	5.053	.185	2.665	.008**
	Family socioeconomic status	4.277	1.887	.161	2.267	.025*
R ² =.178, Adj R ² =.159, F=9.391, p<.001						

p<.05, **p<.01, ***p<.001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봉사활동 참여도와 만족도($r=.486, p<.01$), 봉사활동 참여도와 필요도($r=.308, p<.01$), 봉사활동 만족도와 필요도($r=.631, p<.01$), 봉사활동 참여도와 자기효능감($r=.257, p<.01$), 봉사활동 참여도와 자아존중감($r=.214, p<.01$), 봉사활동 참여도와 회복탄력성($r=.241, p<.01$), 봉사활동 만족도와 필요도($r=.631, p<.01$), 봉사활동 만족도와 자기효능감($r=.182, p<.05$), 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아존중감($r=.167, p<.05$), 봉사활동 만족도와 회복탄력성($r=.194, p<.01$), 봉사활동 필요도와 자기효능감($r=.229, p<.01$), 봉사활동 필요도와 자아존중감($r=.161, p<.05$), 봉사활동 필요도와 회복탄력성($r=.221, p<.0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r=.705, p<.01$),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r=.712, p<.01$),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r=.782,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간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단계선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49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는 .245로 나타나 24.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 수준(.295)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참여도(.220), 연령(.218), 종교유무(.166), 봉사형태(.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9.980$,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69로 나타나 16.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수준(.295)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참여도(.191), 종교유무(.168), 연령(.1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9.39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59로 나타나 15.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수준(.206)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참여도(.213), 성별(.185), 가정경제수준(.1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최근 학생들의 고민상담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취업 위주 혹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추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 입학 후에도 학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전공영역에 부적응하여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선택에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국 교수는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있다. 특히나 봉사활동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자아존중감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19]. 그리고 회복탄력성은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여겨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4년제 대학교 학생이 87.1%로 많았고, 이는 편의표본추출로 인하여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현재의 학업성취 수준은 중정도가 65.2%였으며, 가정 경제의 수준 역시 중정도가 92.7%였다. 대학 재학 시 봉사시간은 100시간 미만인 경우 74.2%로 나타나 100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전공 관련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85.0%로 나타났다. 치위생학,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59.8%가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21], 간호대학생의 경우 85.7%가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22]. 봉사의 형태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59.0%였고, 봉사활동 장소는 주로 요양병원 36.5%, 노인시설 32.0%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66.7%가 주로 양로원과 고아원 복지시설이라는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10]. 봉사시간 활용은 주로 주중 52.2%로 나타났고, 봉사활동 참여도는 적극적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70.2%, 봉사활동 만족도는 만족한다 58.4%로 신미아와 안권숙[21]의 연구에서 81.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봉사활동 필요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63.4%로 나타났으나 신미아와 안권숙[21]의 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해 91%이상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다소 열심히 하는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결과와 본 연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3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을 조사한 선행논문이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의 교양과정대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강좌와 인문학 강좌 및 자기개발 강좌를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학업성취에서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성적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 종교가 있을수록 자아존중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역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종교가 있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어 비교분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종교의 유무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봉사활동 특성에서는 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높게, 봉사의 전공 관련성이 있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현숙 등[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 특성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필요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의 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10]와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황성자[23]과 박현숙 등[24]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만족을 얻고, 봉사현장에서 봉사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수준과 봉사활동 참여도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 봉사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학생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 연령, 종교유무, 봉사형태가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서도 종교유무, 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성별과 가정경제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덕순[13]의 연구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며,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업성취수준이나 봉사활동 참여도를 통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있는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내용을 동시에 연구한 결과는 전무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봉사활동이 대학에서 학생들의 지도와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며 본인의 인성과 태도에 도움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남성이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그리고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p<.05$).

둘째, 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의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p<.05$).

셋째, 봉사활동의 참여도, 만족도, 필요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

($p < .05$).

넷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수준, 봉사활동 참여도, 연령, 종교유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성취수준과 봉사활동 참여도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일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면조사연구방법으로 상관관계는 규명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산 일부 지역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보다 많은 표본수로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전공을 포함하고 봉사활동 경험 정도가 높고,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추후 연구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G. H. Shin, S. S. Ok,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Volunteer Activit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pp. 177-203, 2014.
- [2] S. Y. Park, J. K. Kim, T. Y. Le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2), pp. 376-384,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2.376>
- [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1965.
- [4] I. J.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ly Maladjusted Behavior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5] W. Damon, D. Hart,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4), pp. 841-864, 1982.
DOI: <http://dx.doi.org/10.2307/1129122>
- [6]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1997.
- [7] J. H. Kim, "Resilience", pp. 66-72, *Gyeonggi-do, wisdomhouse*, 2011.
- [8] Y. K. Lee, L. H. Kim,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pp. 1953-1962,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1953>
- [9] J. Y. Jung, J. H. Lim,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pp. 37-51, 2014.
- [10] M. A. Shin,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1), pp. 1024-1035, 2013.
- [11] J. M. Shin, E. K. Lea, N. M. Yang, "The Effects of Career Call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54(1), pp. 169-194, 2015
- [12] H. S. Kim, J.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pp. 223-244, 2015.
- [13] D. S. Son, Y. H. Mo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6(16), pp. 48-69, 2015.
- [14] M. S. Cho, S. S. Lee, J. H. Kim, "Relationship of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pp. 695-701, 2014.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5.695>
- [15] F. Y. Hsieh, D. A. Bloch, M. D. Larsen, "A Simple Method of Sample Size Calculation for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Statistics in Medicine*, 17(14), pp. 1623-1634, 1998.
DOI: [http://dx.doi.org/10.1002/\(SICI\)1097-0258\(19980730\)17:14<1623::AID-SIM871>3.0.CO;2-S](http://dx.doi.org/10.1002/(SICI)1097-0258(19980730)17:14<1623::AID-SIM871>3.0.CO;2-S)
- [16]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pp. 663-671, 1982.
DOI: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 [17]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4.
- [1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1967.
- [19] S. J. Ha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College Student Volunteer's Voluntary Activity : Focusing on College Student Volunteers who Attended on Social Service Subjec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20] G. Windle, K. M. Bennett, J. Noyes, "A Methodological Review of Resilience Measurement Sca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9(8), pp. 1-18, 2011.
DOI: <http://dx.doi.org/10.1186/1477-7525-9-8>
- [21] M. A. Shin, K. S. Ahn, "A Study on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Esteem based on Volunteering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Nur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pp. 1090-1100,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6.1090>
- [22] Y. H. Kim, "The Research of the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 about Voluntary Activ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2), pp. 47-59, 2010.

- [23]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pp. 205-213, 2006.
- [24]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pp. 621-631, 2002.
-

강 현 경(Hyun-Kyung Kang)

[정회원]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 2005년 3월 ~ 2010년 2월 :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임상치위생, 예방, 치면세마, 치주학